

10월 셋째 주 케어모임

10월 셋째 주 설교 review

설교제목: 아멘 설교 시리즈 Part 8 “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”

성경본문: 요한계시록 4:1~11

- 그리스도인들은 종종, 늘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.
-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의 본향인 하늘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곧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무리를 설명해준다.
- 예수님을 바라봄이 예배이다.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종종 하늘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.
-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우리들의 관점이 더 이상 땅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변화된다는 말이다. 예배를 통해 우리는 heavenly transformation 을 경험하게 된다.
- 예배의 경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원의 관점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.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이다.
- 우리는 이 땅에서의 괴로움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. 이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, 즉 예배로만 가능하다. 우리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저 넓은 하늘을 향해 날아올라야 한다.
- 우리 가끔 하늘을 바라봅시다.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지칠수록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로 나아갑시다.

생각해보고 나눌 질문

1.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본향 하늘을 얼마나 꿈꾸고 바라보며 사는가? 땅에서의 고되고 힘든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관점이 달라진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자.
2. 이 땅에서의 괴로움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상상력을 어떻게 키워 나갈 수 있을까? 주일예배와 삶의 예배 가운데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?
3. 지난 8주간의 아멘 시리즈의 설교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 닿았고 나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살아냈던 부분이 있다면 나눠보자.